

홈플러스, 7월8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플러스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 7월 8일까지 전 카테고리 걸쳐 총 9600여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여름 제철 과일과 채소는 총 1400여종 물량을 매일 저렴하게 내놓았다. 주요 생필품과 식료품도 1+1 행사를 통해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비즈 포커스 | 현대차, 국산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출시

소음·매연 걱정 NO... '친환경' 버스시대

고효율 배터리와 전기모터 탑재 1회 충전시 250km...15~33인승 마을버스·어린이 통학버스로 활용 특화 안전 사양 적용, 안전성 UP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국산 최초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흔들리고 시끄러운 마을버스, 유치원버스 시대 끝~”.

현대자동차가 국산 최초의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출시했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마을버스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고효율·고출력의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탑재한 중형 전기버스다.

대형 전기버스인 현대차 일렉시티는 2017년 출시되어 부산과 청주 등에서 시내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대중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현대차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중형 전기 버스 출시로 인해 전기버스 대중화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용도에 따라 마을버스용과 어린이버스를 두 가지로 운영된다.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250km(15인승, 인증 기준)다.

최대 장점은 연료비 절감이다. 128kWh 배터리 완충을 위한 전기 급속충전 비용은 약 2만 8000원으로 디젤 모델을 가득 주유하는 비용(약 10만 9000원)의 약 4분의1에 불과하다.

카운티 일렉트릭에 적용된 150kW급 고출력 모터는 버스가 실제 도심 주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속도 범위인 50~80km/h에서의 추월 가속성을 디젤 모델 대비 30% 이상 높여 우수한 주행성능도 확보했다. 기존 디젤버스는 이 구간에서 승객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소음과 진동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지만 전기버스는 그런 염려가 없다.

탑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기능도 대거 추가됐다. 승객들이 승하차 시 이용하는 중문에 초음파 센서와 도어 개입방지 터치 센서를 기본 적용해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도중에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고, 신체 부위가 문에 끼일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해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문 초음파 센서를 가속 페달과 연동시켜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출발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버스의 경우에는 비상시 차량의 뒤쪽으로 원활하게 탈출할 수 있는 트윈 스윙 타입 후방 비상문을 적용했으며, 좌석 등받이 높이가 220mm 증대, 시트 배열 변경, 복부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벨트 방식 도입 등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운티 일렉트릭을 통해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상용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에버랜드, IT주차시스템 등 고객 인프라 강화

용인 에버랜드가 주차 혼잡, 교통접근성, 노후위생시설 등 그동안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우선 카카오톡과 함께 개발한 IT 주차시스템의 3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고객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에버랜드 정문 주차장의 잔여 주차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만차가 예상될 경우는 다른 주차장을 안내해준다.

또한 에버랜드 안팎에 있는 30여 개의 화장실(사진)을 4월부터 본격 리뉴얼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쾌적함과 청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아 동반 고객이나 장애인 편의시설과 미끄럼 방지 등에도 크게 신경썼다.

이밖에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해 5002번, 5700번 등 11개 노선버스가 이용하는 정류장이 에버랜드 정문 주변으로 이전했다. 기존에는 정문에서 약 3km 떨어진 정류장에 내려 무료셔틀버스로 갈아타지만, 이제는 정문 주변에 내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콘래드 서울, '여름휴가 패키지' 8월31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은 여름휴가 패키지 '퍼펙트 서머 이스케이프'를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한강과 서울 도심에 전망할 수 있는 객실에서 체크인 제공되는 미니 빔 프로젝터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제공되는 빔 프로젝터는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이용 가능하다.

호텔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트리오의 시그니처 피자 와 맥주로 구성된 아트리오 피맥 세트와 객실 내 미니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아트리오 피맥 세트는 테이크아웃으로도 즐길 수 있다. 오후 2시 레이트 체크아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콘래드 서울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볼보, 웨이모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볼보자동차그룹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웨이모(Waym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웨이모는 볼보자동차그룹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 있어 독점적 파트너 지위를 갖게 됐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먼저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차량 호출 서비스(Ride-hailing)를 위한 전기차 플랫폼에 통합하는 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볼보자동차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헨릭 그린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생활, 업무, 여행하는 방식 등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웨이모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볼보자동차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2019 GM 올해의 우수 공급업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엔터)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제너럴 모터스(GM)에서 개최한 '올해의 우수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2019 GM 올해의 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올해의 우수 공급업체 시상식은 GM이 거대 중인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혁신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 우수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특히 품질, 물류, 공급망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타이어 부문은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미쉐린, 브릿지스톤, 콘티넨탈 등 6개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가 수상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GM 우수 공급업체 선정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알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IPO 흥행 돌풍' SK바이오팜·위더스제약, 이번주 신규 상장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독자개발 위더스제약, 노인성 질환 품목군 강화

청약 증거금 31조 원으로 국내 기업공개(IPO)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SK바이오팜과 1082.03 대 1이라는 높은 공모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위더스제약이 이번주 신규상장 된다. 바이오·제약 분야 흥풍과 맞물려 흥행열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SK바이오팜의 확정공모가는 4만9000원이자, 100% SK 자회사로 2011년 SK의 생활

과학 사업 부문이 단순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업체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독자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명: 엑스코프리)와 기술수출해 미국에서 출시된 수면장애 치료제 신약 솔리암페톨(미국/유럽 제품명: 수노시) 등이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고, 올해 5월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수출하지 않고 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했다. 솔리암페톨은 기술 수출로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2개 국가 내 판권은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 및 희귀질환, 항암 분야에서도 유효물질의 발굴을 진행 중이다. 이번 IPO를 통해 확보된 공모 자금은 신약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재투자해 회사의 성장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약품 전문 제조사 위더스제약은 7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확정 공모가는 1만5900원이다. 이번 공모 자금은 생산 공장 설비 투자, 물류창고 증축, 이

중정 기반 개량신약 R&D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중정이란 한 알약 속에 다른 하나의 알약이 들어 있게 만든 약으로,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두 약품을 하나의 알약으로 만들어 약 효과가 각각 유지되도록 한다.

위더스제약은 이중정 기반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노인성 질환 품목군 강화와 더불어 탈모치료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이사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이중정 기반 개량신약, 탈모치료제 사업 등 회사의 성장동력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위기 맞은 제주·이스타항공 M&A 새 돌파구 될까

이상직 의원 “이스타 지분 전부 헌납”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방화동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상직 의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전무)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가족회의를 열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헌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66.7%)와 딸 이수지씨(33.3%)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오너일가의 이번 지분 헌납 선언은 최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협상이 250억 원의 체불임금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왔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오른쪽)와 김유상 전무가 2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측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대주주가 회사를 포기하고 헌납까지 하게 된 상황에 송구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제주항공은 약속한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인수 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600명 임직원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부영그룹, 한전공대에 806억 상당의 부지 기증 부영그룹이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부영그룹 사옥에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에 나주부영CC 부지 중 40만㎡(감정가액 806억 원 상당)를 기증하는 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부영그룹의 기증이 한전공대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고, 전남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양현 부영그룹 사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김희천 한전 부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유운근 한전공대 광주전남 법사도민지원위원회 회고문, 윤병태 전남 정무부지사. 정용운 기자, 사진제공 | 부영그룹

재규어 랜드로버 '하계 서비스 캠페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0 재규어 랜드로버 하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40여 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무상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배터리, 에어컨,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과 외부 손상 상태, 에어 클리너,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블레이드, 벨트류, 각종 동화 장치, 차체하단부 누유, 워셔액 등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픽업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